

# 중복·유사 48개 사업 통폐합... 3조 절감

4·29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선 예비후보 릴레이 인터뷰

정의당 강은미

## ■정부·지자체 복지재정 누수 차단 종합대책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복지재정 누수·낭비를 차단할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부처 간, 또는 정부와 지자체 간 중복·유사사업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3조 원 상당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복지 수혜 감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분야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이 총리 취임 이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로, 관계부처 차관들과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상의 복지 대상자의 자격정보 연계·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 주기를 기존 연 2회에서 매

## 부적격자 급여지급 방지

## 일부선 복지수혜 감소 우려

월 또는 매분기 단축하고 출입국·주민등록말소 등 변동 정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적정 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부처별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도 강화한다.

국도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택기금 전세대출 중복수혜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부적정 수급에 대한 기초조사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고 법무부와 경찰청은 보조사업 비리에 대한 상시조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국세청은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부적정 수급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중 목적과 지원 내용, 대상이 중복되

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운영방식 개편을 추진해 300여개 내외로 정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대표적인 유사사업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여성장애인자원사업,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 등을 들고 있다. 이들 사업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이 각각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들 대책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1조8000억원을 우선 절감하고, 지자체 및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1조3000억원을 추가로 절감하는 등 올해 전체적으로 3조원 수준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부처에서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을 통해 5500억원, 부적정 수급 근절로 6000억원,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로 1000억원,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를 통해 5500억원 상당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한 정보는 그동안 지적돼왔던 사항"이라며 "정부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혜자 중복 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민심은 약자 챙겨줄 일꾼 원해”



“이번 선거는 정권교체와 야당교체가 아닌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 정의당 강은미 예비후보는 1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민심은 정말 살뜰히 지역을 챙기고 서민들과 소외된 약자를 위해 일해 줄 정당과 인물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는 “일부 후보가 자신들의 인지도와 유명세를 가지고 선거에 임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서구 유권자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헛헛하진 것 같다”면서 “유권자들은 그동안 광주를 위해, 서구를 위해 일해 온 저의 의정활동을 알아주시고 진정한 지역일꾼을 뽑아주시고”면서 지역민심을 전했다.

강 후보는 매일 18시간의 강행군을 펼치며 지역민심을 다지고 있다. 그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최초로 선출된 광주시의원으로 당선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시의원 지역구였던 상무 2동, 금호 1·2동, 서창동에서는 상당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다고 자부했다.

강 후보는 대선 지지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화정 3·4동과 풍암동에 ‘전력투구’를 하면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만들고, ‘광주지역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여는 등 비정규직과 청소년, 사회복지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해왔다”면서 “본인들의 인지도와 유명세만을 믿는

## 화정·풍암동에 ‘전력투구’

## 전정배후보와 연대 안할것

후보들과 달리 이렇게 지역의 서민과 약자를 챙겨줄 아는 지역 일꾼이 지금은 꼭 필요할 때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소속 전정배 후보와의 연대 또는 후보 단일화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나 선거연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치를 바꾸는 것은 개인이 아

니고, 정치세력이다”라며 “그런데 전 후보는 세력이 아닌 개인이다. 개인이 정치세력을 개편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는 전 후보와의 연대 보다는 정의당과 노동당, 노동자 정치연대, 국민모임과의 ‘4자 연대’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광주 광산 출생(1970) ▲중앙여고 ▲전남대학교 해양학과 ▲제5대 서구의원 ▲제6대 광주시의원 ▲중앙공원 시민네트워킹 공동대표 ▲정의당 광주시당(준) 위원장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 ■5대 핵심 공약

- ▲공공형 최저임금(시중노임단가 8019원) 실시
- ▲중앙공원 생태문화테마공원 조성 및 마북동에 호남권 최대 도서관 및 생활체육센터 건립
- ▲서민·중산층에 전월세 상한제, 자영업자에 카드수수료 인하 실현
- ▲사회복지세 도입에 따른 책임복지·보편복지 실현
- ▲선진국형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 “관광 순환버스 타고 남도 섬여행 떠나요”

## ‘남도한바퀴’ 금오도 비렁길 추가

“관광버스 타고 남도의 섬 둘러보세요.”

섬 여행코스를 넣어 한층 업그레이드된 금오고속의 전남관광순환버스 ‘남도 한바퀴’가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금오고속은 지난 28일부터 버스를 타고 섬 여행이 가능하도록 여수 금오도 비렁길을 운행 코스에 포함시켰다. 비렁길은 길 전체가 바다전망대이자 일광무제의 풍경으로 잘 알려진 금오도의 비경이다.

버스는 광주에서 오전 8시50분 출발, 여수 돌산읍 신기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정오쯤 금오도 여천선착장에 도착한다. 중식으로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채취한 특산물 방풍나물과 전복, 우럭 등을 넣은 비렁길 삼발상을 먹은 뒤, 비렁길 탐방을 마치고 다시 광주로 돌아온다. 요금은 2만5000원(중식비 제외)이다.

남도 한바퀴는 광주와 순천, 목포, 여수, 진도 등 총 5개 권역 8개 코스의 41개 관광지를 순회하며 남도의 맛을 전하고 있다. 홈페이지(www.kumhoaround.com)나 하나투어, 버스타고 등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문의, 062-360-8502).

/임동률기자texasian@kwangju.co.kr



## 고국으로 돌아온 덕종어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덕종어보 반환식’에서 시애틀미술관이 소장 중이던 조선 덕종어보가 공개되고 있다. 덕종어보는 조선 제9대 임금 성종이 죽은 아버지 덕종을 기려 1471년 운문의경왕(溫文懿敬王)이라는 존호를 올리면서 제작한 것이다. 이날 기념식에서 시애틀미술관 키멀리 로샤흐(Ms. Kimerly Rorschach) 관장은 나선화 문화재청장에게 어보를 넘겼다. /연합뉴스

## 신안 전장포·우이도, 진도 서거차, 여수 초도·연도항 등

# 전남 5개 어항 ‘어촌 마리나역’ 개발

## 무안 구로마을 등은 어촌 특화역량강화 마을 지정

신안 전장포항과 우이도항, 진도 서거차, 여수 초도항과 연도항 등 5곳의 전남 어항이 해양레저관광의 거점으로 육성된다.

해양수산부는 1일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항 내 유수수역에 레저선박 계류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주변 마리나 시설과 연계하는 ‘어촌 마리나역(驛)’ 1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촌 마리나역(驛)’이란 어업과 해양레저 활동이 공존하는 어업 겸용 소규모 마리나 시설로, 해양레저 활동을 안전하

고 편리하게 연계하는 해상 간이역을 의미한다. 즉 거점마리나 시설들을 연계·지원하는 해양레저 서비스 공간이며, 비상시 피항과 휴식을 비롯하여 지역의 소규모 레저형 선박을 안전하게 수용하는 곳이다.

어촌 마리나역은 현재 부안 격포항, 울진 오산항 등 2곳이 있으며, 홍성 남당항 등 5곳이 추진 중이다. 그동안 전남은 1곳도 선정되지 못했으며,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곳 중에 절반이 넘는 5곳이 전남에 배정됐다.

어촌 마리나역(驛) 개발 대상항은 거

점 마리나와의 거리 등 입지 적합성과 항내 여유수역 및 정온수역 보유, 어업인 등의 등 개발 적합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곳으로, 국가어항 109곳 중 이용실태 등을 고려,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선정된 대상항 중 우선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1곳을 선정해 올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무안 구로마을, 신안 한운·사치마을, 고흥 신평마을, 보성 벽교마을 등 전국 12곳을 올해 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 대상으로 정해 마을의 자원 발굴, 공동체 형성, 마을 특화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윤현석기자chadol@

‘초록의 꿈! 추억의 보릿길!’

# 제12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

2015. 4. 18(토) ~ 5. 10(일) 23일간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장 일원